진도군, 가뭄 피해 극복 속도 낸다

금호호 농업용수 공급 사업 추진 진도-해남 농촌용수 연결 기공식 물 부족 항구적 해결 가능성 기대

진도군이 항구적 가뭄 피해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진도군은 지역 내 물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호호의 물을 진도에 공급하는 사업이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진도군은 지난 2017년 유래 없는 가뭄으로 모내기를 하지 못하고, 모내기를 마친 논은 거북등 처럼 갈라져 벼가 말라 죽는 극심한 피해가 발생

이에 따라 물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진도-해남 농촌용수 연결사업' 기공식으로 시작하는 '금호호~군내호 농업용수 연결사업'은 해남군 문내면과 군내면 녹진리 해저관로 1.1km를 포함해 중수관로 16.7km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를통해 해남 금호호의 농업용수를 진도군에 공급한다

항구적 가뭄 대책의 하나로 국비 328억원을 들여 2026년 3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1일 진도대교 인근에서 진도군과 농어촌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도-해남 농촌용수 연결 사업' 기공식이 열렸다. 〈진도군 제공〉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영농에 필요한 관개 용수 공급 체계 구축도 한다.

이번 사업은 박승만 전 군수가 영산강 물을 끌어 오자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당시 농림부장관이 었던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결단으로 이뤄진 것으 로 전해졌다.

군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가뭄 시 상습 농업용 수 부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해결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 활동으로 농업 소득 증가가 예상된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물 걱정 없이 영농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기후변화 등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가수 영탁, 완도 전복 홍보대사 이어 광고 모델 됐다

완도군, 전복 광고모델 발탁 전복 판매량 증가 기대

가수 영탁이 완도 전복 홍보대사에 이어 광고 모델로 활동하게 됐다.

완도군은 지역 대표 특산물인 전복 소비 촉진을 위해 광고 모델로 가수 영탁을 발탁했다고 밝혔다.

완도군은 가수 영탁 특유의 밝고 건강한 이미 지가 면역력 강화와 건강 대표 식품으로 손꼽히 는 전복 콘셉트와 잘 어울려 모델로 선정하게 됐 다고 서명했다.

영탁을 광고 모델로 한 전복 광고는 4월부터 주요 언론사 지면 및 홈페이지 배너 광고, 옥외 전광판, 완도군 농수특산물 중계 쇼핑몰인 '완 도군이숍' 쇼핑몰 메인 광고 등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가수 영탁은 앞서 지난 2월 10일 신곡 '전복 먹으러 갈래' 발매 후 완도군 전복 홍보 대사로 위촉됐으며, TV·라디오 정보 및 예능 프로그램 에 연달아 출연해 완도의 매력뿐만 아니라 전복 을 알리는 등 완도 전복 홍보대사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영탁이 전복 홍보대사로 위촉되고 신곡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완도군이숍'의 전복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66%가 늘기도 했



rl.

특히 영탁 팬클럽에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가정 아동, 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 등을 위한 '전복죽 먹으러 갈래' 전복죽 기부 챌린지를 진행하면서 한때 전복죽이 품절되기도 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매년 $4\sim5$ 월 전복 홍수 출하 시기에는 전복이 높은 품질임에도 불구하고 대량 출하로 인한 소비 부진과 가격 하락 등으로 어업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전복홍수 출하 시기에 맞춰 영탁 전복 홍보대사 기념 온라인 할인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해남 특산물 미니단호박 체지방 감소 효과는

식품기능성 평가 지원 공모 선정 해남군, 인체 임상실험 실시

해남군이 해남 특산물인 미니단호박 기능성 소재의 인체 적용시험을 한다.

해남군은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시행하는 농림축 산식품부 2022년도 식품 기능성 평가 지원 공모사 업에 선정돼 2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2년 동안 해남군과 해남 밤호박주식회사, 대학병원, 임상시험수탁기관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체 임상실험을 한다.

100명 피험자를 대상으로 미니 단호박 열처리 분말 식이실험을 하며 체지방량, 체중, 비만 관련



해남 특산물인 미니 단호박과 단호박 차.

호르몬 등을 측정해 체지방감소 효과를 검증한

군은 2019년 가공 기술 표준화 연구를 통해 지역 농산물인 미니단호박에서 기능성 성분(저항전분)을 최초로 규명, 기능성 원료 등록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 학술지 게재 3건과 국제심포지엄 포스터 발표 2건을 비롯해 1건의 특허출원, 특산자원 융 복합 기술지원 등 공모사업 2건이 선정되는 등 관 련 분야에 독보적인 성과를 보였다.

해남지역 미니단호박 재배면적은 300여농가 80 ha이며, 연간 20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지역 농산물인 미니단호박 등을 활용한 농특산물 기능성 소재 연구개발이 기 능성 식품원료 등록에 성큼 다가서는 성과를 거두 고 있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영광군, 농업인 '농기계 면세유' 인상액 지원

휘발유·경유 *l* 당 183원

영광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치 솟은 국제유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 해 '농기계 면세유' 인상액을 지원한다.

영광군은 유가 폭등에 따른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예비비 2억1300만원을 긴급 투입해 농기계 면세유 인상액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생산비 절감 농기계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사업' 대상은 전남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지원 대상 유류는 배정받은 농업기계용 면세유

류 중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사용한 휘 발유와 경유 2종으로 l당 183원을 정액 지원한 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농협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농업유통과(061-350-5384)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면세유 지원 사업이 유류비 상 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도 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목포해수청, 봄 행락철 여객선 특별점검

68척 대상 14일까지 소화·구명·통신설비 등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봄 행락철 여객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여객선 특별점검'을 한다.

전남 서남권 여객선 68척을 오는 14일까지 점검 한다.

목포해수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국선 급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항해·통신 설비, 소화 ·구명 설비, 주기관·보조기관 관리상태 등을 살 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여객선 생활방역 지 침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봄철은 해상에 짙은 안개가 자주 끼고 성어기 조 업 선박이 증가하는 시기로 크고 작은 해상 충돌 사고가 작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봄철은 안개로 여객선 운항이 자주 통제되니 항로별 여객선 운항 여부를 사전에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신안군, 친환경 볍씨 온탕소독 무상 지원

6월 10일까지 운영

신안군이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볍씨 온탕소독 을 무료 지원하고 있다.

볍씨 온탕소독은 6월 10일까지 운영된다.

군은 지난해에 1300농가 283t의 볍씨를 소독해 농업인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볍씨 온탕소독은 60℃의 물에 벼 종자를 10분

동안 담근 후 찬물에 식혀 소독하는 방법이다.

종자로 전염되는 키다리병을 약제를 사용하지 않고 병해충을 예방하는 친환경 종자소독법이 다

강행선 신안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친환경 볍 씨소독 기술보급과 함께 볍씨 적정량 파종, 적기 모내기 등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